

이슬람시장에 식품 수출 지원

식품연-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와 협약 체결... 국내 최초할랄 전문 분석연구실 구축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오늘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이하 JAKIM)와 이슬람권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식품연에서 체결한다.

본 협약은 식품연과 JAKIM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할랄 과학의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체결되며, 향후 전문 분석연구실(할랄랩) 등의 구축을 통하여 이슬람권에 대한 식품 수출 증진에 초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JAKIM은 할랄인증에 대한 절차처리, 실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할랄인증 정부기관이다.

약 1조3000억 달러에 가까운 할랄 식품시장, 즉 이슬람권에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표준에 따라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식품 수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할랄 인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식품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할랄 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

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주체로서 2016년부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할랄식품 시장으로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취득 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 및 식품안전관리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중이다.

식품연은 국제 할랄 분석기관(Global Haltech)으로부터 관련 기술 및 연구소 운영 등을 지도 받아 분석을 위한 인정(KOLAS)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 국내 최초로 JAKIM과 상호 협정을 맺고 할랄랩

(KFRI Haki Lab)을 운영하게 되었다.

향후 식품연은 JAKIM과 ▲국내 최초 할랄랩 구축 및 운영 지원 ▲JAKIM의 전략적 파트너 구축 ▲할랄 성분 분석 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 ▲할랄 교육 등을 통하여 양국 간 할랄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동준 원장은 "할랄 과학, 특히 할랄 분석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할랄 과학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식품기업들의 이슬람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올원뱅크 프리미엄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15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매일 '올원뱅크' 고객을 대상으로 올원뱅크 '프리미엄(Free-mium)' 출시체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원뱅크 프리미엄(Free-mium)이벤트 달력에서 출시체크 스탬프를 해당 월의 50% 이상 찍은 고객 중 매월 6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지난 9월 20일 출시된 올원뱅크 프리미엄(Free-mium)서비스는 ▲드라마/예능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 감상 코인 지급 ▲오프라인 매장 할인쿠폰 제공 ▲매주 핫딜 인기 제품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고객 수가 출시 20일 만에 10만 명에 달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앞으로도 올원뱅크 이용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원뱅크 프리미엄 이벤트 게시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52-3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16일 전주시청에서) 두원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건의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김승수 전주시장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북 중소기업회장 두원정)는 16일 전주시청에서 두원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연합회 단체인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연합회와 전주시청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

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권 거점형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전주형 특화분야 지원사업의 조속 시행 ▲전주중앙상가 노후 환경 개선 ▲지역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 ▲소기업 공동사업체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중기제품 구매시 조달추진제도 적극활용 ▲정규시간 이외의 불분서비스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조례 제정 등

을 건의했다.

두원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연합회장은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가속화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역생산제품 구매 등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전북지역본부

'황금열쇠를 잡아라' 이벤트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신중호)는 10월 한 달간 전시장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황금열쇠를 잡아라'와 'H-Sales Festa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개최한다.

황금열쇠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전시장 내 현대자동차 전시장 방문하는 고객 중 쏘나타 & 포터 퀴즈 풀기 참가자가 그 대상이며, 오는 11월 초 추첨을 실시해 1등 1명에게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증정할 예정이다. 2등 10명과 3등 100명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 주유상품권과 스타벅스 카페라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H-Sales Festa 전시장 방문 이벤트는 오는 11월30일까지 방문 고객이 대상이며, 이벤트 참가 고객에 대해서는 이벤트, 그랜저, 쏘나타, 코나 등 인기차종 최대 10% 할인과 계약금 10만원 지원 등 혜택에 부여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는 친환경 운전엔 관심 많은 전북 고객을 위해 9월 한 달간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회 결과 전주시 거주하는 황 모 씨가 56.1km 기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높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입증하며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한은 금융통화위, 기준금리 연 1.25%로 인하

세계 경제 둔화 등 감안 추가 금리인하 전망 우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한은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번 금리인하는 깊어지는 경기 침체의 골을 감안할 때 예정된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 가속 폐달을 밟은 한은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 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추면서 인하 신호탄을 쏘더니 8월 한차례 동결한 뒤 이번엔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이다.

급속도로 둔화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교역 둔화, 미·중 무역

분쟁 등에 휩싸여 수출·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2%대 성장을 일궈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은도 당초 내놓은 전망치(2.2%)를 부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 하락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난 것은 농축산물값 하락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는 하지만 올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지속해오며 이미 디플레이션 우려는 번진 상태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장의 예상과도 대체로 부합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조사자 200명(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에 나선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부담감을 다소 덜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외·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

탈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은 으로서는 늘 경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한·미 금리차는 다시 0.5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적정선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한은은 미국 금리와의 역전폭을 대체로 0.7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세계 경제 둔화 흐름 속에서 맥을 못추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연내 마지막 남은 11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1월이나 2월 등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다.

이미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부진세 등의 영향으로 0% 초반대에 불과할 것"이라며 "11월부터 수출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들 순 있어 경기 개선에 따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치유농업으로 건강하게

고혈압·당뇨 등 생활습관성 질환자 신체·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

텃밭에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활동이 고혈압·당뇨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치유농업 활동이 고혈압, 당뇨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자(대상성 만성질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 또는 관련 활동으로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의 건강을 꾀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최근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치유농업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인 효과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순창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생활습관성 질환자 14명(평균 나이 49.8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회당 4시간씩 총 7회)에 걸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텃밭 설계, 씨앗 심기, 모종 심기, 꽃·채소 가꾸기, 콩 수확 등 텃밭 가꾸기를 중심으로 음

식 만들기와 농장 주변 산책 등 신체활동 위주로 구성했다.

진행 결과, 뇌파 분석에서 참여자들의 안정·이완 지표는 42% 올랐고, 긴장·스트레스 지표는 21.7% 낮아졌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28.1% 줄었다.

생활습관성 질환자 건강의 중요한 지표인 허리둘레는 평균 2cm가량 줄었고, 인슐린분비능 지표는 47.4% 증가했다. 나쁜 콜레스테롤도 9.2%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생활습관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장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농업이 생산수단은 물론, 건강 증진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효과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학기 원예작물부장은 "치유농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물의 치유 효과와 병원 원리를 검증하고, 연령과 직업,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자원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 신규 입주업체 모집

전북소상공회망센터, 21일까지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 중인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희망센터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7월에 여의동 여의광장4거리 인근에 개소했다. 희망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소상공인 창업·보육 전문센터로 저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무실 제공 및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각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82개 보육실을 운영중이며, 입주 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하여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전라북도 거주자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 기간에는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최대 6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예비)창업자는 사무공간 임대 및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 및 희망센터 홈페이지(www.j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해외여행 특화 혜택 '총망라'

'신세계면세점 SSG 카드'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신세계면세점과 손잡고 지난 11일부터 해외여행자를 위한 혜택을 패키지 로 만든 '신세계면세점 SSG(씩) 카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SSG 카드는 국내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 금액의 0.8%, 해외 결제 시 2%(~2020년 3월 31일까지)적립이 가능하다.

가입 첫 해에는 전월 실적 제한 없이 신세계면세점 선불카드 10만원을 증정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연 1200만원 이상 카드 사용 시 추가 10만원 총 20만 원을 제공하며, 카드 이용 고객에게는 ▲신세계면세점 최대 20% 할인 혜택과 BLACK(블랙) 멤버십 발급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권(연 3회) ▲인천공항 발렛파킹(월 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신세계면세점 SSG 카드 출시에 맞춰 연말까지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를 신규로 발급한 고객에게 신세계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100/300 달러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스마트 선불 2/5만원을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에 따라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제휴캐시를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SSG 페이로 결제 시, 월 2회 최대 20% 캐시백 쿠폰을 제공하며, 최대 5



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도 주어져, 여기에 SSG.COM(씩닷컴) 또는 이마트에서 첫 결제 시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30% 캐시백도 함께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한 신용카드 정보제공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도 가장 받고 싶은 해외여행 혜택'으로 면세점 할인, 발렛파킹 및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등이 순위에 올랐다"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SSG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회비는 국내의 경우 마스터카드 11만원, 국내전용은 10만 8천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SSG카드 고객센터(☎1522-33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